

## 국내경기는 7월 만에 악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재확대로 개인소비 저하 ~

(조사대상 2만 3,688 사, 유효회답 1만 1,479 사, 회답율 48.5%,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0년 1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35.0으로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 등으로 회복경향이 멈추었다. 향후의 경기는 일시적인 후퇴가 예상되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상황에 따라 봄까지는 바닥까지 떨어진 후, 완만한 상향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서비스』, 『운수·창고』, 『소매』 등 8개 업계가 마이너스, 『제조』 등 2개 업계가 플러스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관광시책의 정지 등으로 사람의 이동이 억제되어 『서비스』 및 『소매』를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 『홋카이도』 『미나미칸토』 『츄고쿠』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악화, 『호쿠리쿠』 『시코쿠』의 2개 지역이 플러스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확대된 지역에서 체감경기의 악화가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서의 관광 및 소비관련은 하락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모두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월차조사 / 조사개시 : 2002년 5월)



### < 2020년 12월의 동향 : 회복경향이 멈춤 >

2020년 1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35.0으로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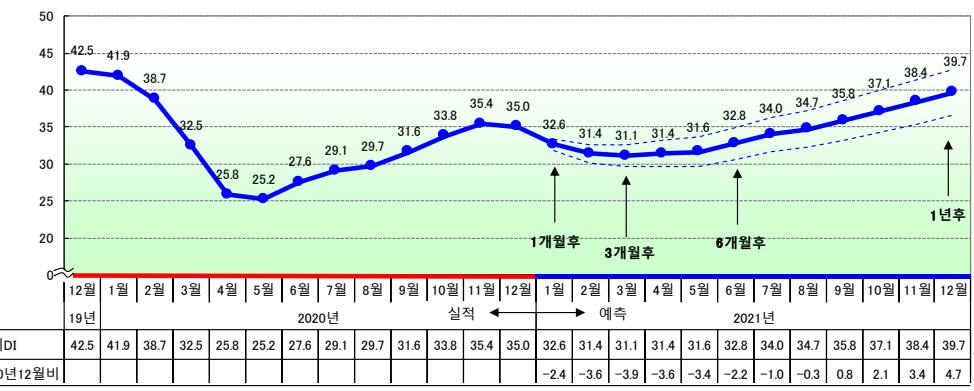
12월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에 따라 관광지원의 각종 시책이 전국적으로 일시 정지되는 등의 악재로 회복 경향이 멈추었다. 게다가 동계상여의 감액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실업자 증가 등 소득환경이 악화된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휴업·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소매 및 개인 서비스 등 개인소비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관련 생산이 견조로 추이한 반면, 공작기계 및 생산기계를 포함하는 기계 제조,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은 상향하였다.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 등으로 회복경향이 멈추었다.

### < 향후의 전망 : 일시적인 후퇴 >

향후 1년 정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에 따른 사회경제활동의 억제책 실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후퇴가 예상된다. 또한 감염상황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 및 업종간에서 경기의 움직임이 이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고용·소득환경의 악화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등은 개인소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백신접종의 확산 및 5G의 본격적인 보급, 도쿄올림픽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자택 내 소비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수요의 수용 및 해외경제 회복 등도 기대된다.

향후의 경기는 일시적인 후퇴가 예상되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상황에 따라 봄까지는 바닥까지 떨어진 후, 완만한 상향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